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배색 판단 형성 과정 연구: 촉각적 행위와 양면 색종이 매체 구조를 중심으로

김지은*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나타나는 색 배치와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촉각적 행위와 매체 구조가 색채대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형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찢기, 도구 사용, 천공, 양면 색종이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 대비 구조와 배색 판단 변화를 질적 내용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계 표현 방식에 따라 색 배치 구조가 달라졌으며, 양면 색종이는 색 관계를 선형적으로 조직하는 구조적 매체로 기능하였다. 또한 배색 판단은 감각적 선택에서 관계 인식, 구조적 조정 단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미술교육에서 촉각적 조형 행위와 재료 구조가 배색 판단 형성의 핵심 조건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문자도, 색채대비, 배색, 배색 판단, 조형활동, 미술교육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논문접수일: 2026.03.04.

논문수정일: 2026.03.27.

게재확정일: 2026.04.10.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사용자 경험은 시각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나 최근 기술 디자인 분야에서는 촉각적 경험의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터치스크린 중심 인터페이스가 효율성을 높였지만 반면에 손끝의 물리적 반응은 축소되어, 이에 따라 ‘손맛’이라 불리는 촉각적 조작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최호섭, 202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손의 직접적 행위는 확신과 몰입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재평가되고 있다. 촉각적 경험의 회복은 미술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술 활동은 본래 손의 감각적 조작을 포함하므로 조형활동을 통해 색을 배치하고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촉각적 판단과 시각적 판단이 동시에 작용한다. 손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미술과 디지털 미술의 차이는 촉각적 조형 행위와 디지털 화면 기반 조작 방식의 차이로 구분될 수 있으며, 손의 반복적 작업은 정형화된 피상적 표현을 넘어 잠재적 표현을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아날로그 미술은 손의 작업을 통해 ‘개념 없는 반복’을 수행하고 ‘개념 없는 차이’를 생성하며, 이러한 조형 과정은 인간 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적

*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 jnproject@naver.com

가치를 지닌다(박정애,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한 시각적 분석을 넘어서 촉각 기반 조형 행위가 색 선택과 배색 판단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자도를 활용한 조형활동을 통해 탐구하고 미술교육에서 손의 감각적 행위와 도구 사용의 중요성을 밝히고자 한다.

국내 문자도 연구는 주로 전통 민화의 도상학적 의미와 지역적 양식,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부 선행연구는 문자도의 색채와 조형 요소를 분석하거나 문자도 활용 교육 및 디자인 분야 전통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하였지만(권윤경, 2023; 양순영, 2018; 유장웅, 신승택, 2007; 장현주, 고순희, 2013; 전은자, 2010),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채 인식과 배색 과정을 다룬 연구는 드물다. 특히 조형 행위와 재료 특성이 색채대비 인식과 배색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문자도는 전통적 문자와 상징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다루어져 왔다.

문자도는 문자 의미와 조형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 시각 구조로 문자라는 기호 체계가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로 전환되면서 의미와 형태가 동시에 조직되는 특징을 지닌다(권윤경, 2023). 이러한 구조에서 문자는 획은 면의 경계를 형성하고 색이 적용되는 단위로 기능하며, 색채대비와 배색 판단은 면 구성과 경계 형성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색의 선택, 면의 분할, 경계 형성 방식, 색의 겹침과 노출 등 다양한 디자인 조형 요소가 적용되므로 문자도는 색 배치와 조형 구조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조형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재료의 특성과 행위 방식에 따라 색의 배치 구조와 대비 방식이 변화하는 특성은 조형교육적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인 초등 예비교사는 향후 미술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조형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매체에 의한 색채대비와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경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색채 지도는 단순한 색 이론 전달이 아니라 조형 행위와 재료 사용에 따라 색의 관계를 조직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므로 예비교사는 이러한 과정 경험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의 문자도 활동은 주로 상징적 표현 활동으로 다루어졌으나, 본 연구의 제작 과정에서는 배색 구조 형성, 면 분할, 레이어 구성, 절단과 천공을 통한 시각적 깊이 형성, 손과 도구 사용의 전환 과정 등 다양한 디자인 조형 요소를 적용한다. 특히 양면 색종이의 활용은 색채의 전환과 겹배색 구조를 동시에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각적 배색 교육의 가능성을 지닌다. 따라서 양면 색종이를 활용한 찢기, 접기, 천공 활동은 색 대비 인식을 촉각적 경험과 연결하는 조형적 조건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문자도 조형활동을 촉각적 행위와 색 배치 판단의 형성 과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미술에서 의미는 감각적 경험과 해석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며 감각 경험은 인식과 의미 형성의 출발점으로 작용한다(백운소, 2020; Wright, 2017). 본 연구에서 문자도 조형 활동은 의미표현을 위한 손의 직접적 행위와 도구 사용을 결합하여 구성하였다. 눈은 관찰을 통해 두뇌와 공동작업을 수행하지만, 손은 눈과 두뇌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잠재적인 표현을 수행한다(박정애, 2024). 이러한 과정은 색 선택이 감각적 단계에서 인접 색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나아가 색채대비를 조절하는 배색 판단으로 구조화되는 조건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문자도 표현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자인 조형요소, 감각적 배색 구조, 손의 행위성과 도구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고 조형 판단이 형성되는 단계적 구조를 밝히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손의 찢기, 가위 및 핑킹가위와 같은 도구 사용, 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계 표현 방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양면 색종이의 겹침과 노출 구조는 색채대비 형성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감각적으로 선택된 색은 손의 행위와 도구 사용 과정에서 어떻게 배색 판단으로 구조화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손의 행위와 도구 사용에 따른 경계 형성 방식

문자도는 전통적으로 문자와 이미지를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재구성한 조형 형식으로, 문자라는 기호 체계가 조형 요소로 전환되는 특징을 지닌다(권윤경, 2023). 본 연구에서 문자도는 문자 형태를 점, 선, 면의 조형 요소로 재구성하는 활동으로 이해된다. 문자도의 획은 선으로 나타나고, 이 선은 면과 면을 구분하는 경계로 작용하며, 면은 색이 적용되는 단위가 된다. 따라서 문자도 조형활동은 문자 의미를 표현하는 활동을 넘어서 면의 구성과 경계 표현 및 색 배치가 결합된 조형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형활동에서 경계는 면과 면을 구분하는 시각적 요소이며, 경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따라 화면의 구조와 인상이 달라진다. 경계 표현은 단순한 형태적 구분이 아니라 색채대비가 형성되는 조건을 제공하며 면 구성과 색 배치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계 표현은 직선, 곡선, 반복 패턴, 불규칙 형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시각적 리듬과 구조 인식에 영향을 준다. Arnheim(2015)은 시각적 구성에서 형태와 구조가 요소 간 관계를 통해 인식된다고 보았으며, 경계를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설명하였다.

경계 표현은 조형 행위의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손으로 직접 재료를 다루는 경우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경계의 형태, 반복성, 예측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Sennett(2008)는 손의 반복적 행위가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는 능력을 형성하며, 이러한 감각이 판단 능력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형활동에서의 경계 표현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손의 감각적 경험과 도구 사용 방식이 결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의 찢기, 가위 및 핑킹가위 사용, 천공과 같은 서로 다른 조형 행위가 경계 표현 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계 표현이 색채대비 형성과

배색 판단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경계 표현 방식은 다음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찢기: 비정형 경계 표현

손으로 종이를 찢으면 경계는 불규칙하게 형성된다. 찢는 방향과 힘의 강도에 따라 가장자리가 달라지며, 종이의 섬유질이 드러나는 질감이 형성된다. 이러한 비정형 경계 표현은 동일 형태로 반복되지 않고 예측 또한 어려우므로 화면에 우연성과 변이의 조형적 효과를 형성하며, 색면 간 자연스러운 겹침과 이어짐이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2) 핑킹가위: 반복 경계 표현

가위를 사용하면 경계는 비교적 일정한 선형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핑킹가위를 사용하면 경계는 일정한 톱니 모양으로 패턴이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 경계 표현은 화면에 리듬을 형성하며, 동일 형태의 반복으로 시각적 규칙성을 부여한다(Itten, 1975). 이러한 반복 경계는 화면에 질서를 형성하고, 면 분할의 방향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이는 비정형 경계와는 달리 예측 가능성과 반복성을 기반으로 경계가 형성된다.

3) 천공: 노출 기반 경계 표현

펀칭기와 같은 천공 도구를 사용하면 종이에 구멍이 생기며 상부와 하부 색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어 경계는 절단된 선이 아니라 구멍의 형태로 나타나고, 상부 색과 하부 색은 분리된 면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안에서 함께 인식된다. 이는 단순한 면 분할이 아니라 면을 관통하여 이중 구조를 형성하는 경계 표현이다. 이때 경계는 면과 면을 구분하는 선이 아니라 색이 노출되는 영역으로 기능하며, 색채 대비가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난다. 또한 구멍의 크기와 배열 방식에 따라 대비의 강도와 리듬이 달라진다.

<표 1> 경계 표현 방식에 따른 조형 특성

경계 유형	조형 행위	경계 특성	조형적 효과	판단 특성
비정형 경계	찢기	불규칙	우연성, 유동성	감각적 조정
반복 경계	가위 / 핑킹가위	규칙적, 반복적	리듬, 질서	구조 인식
노출 기반 경계	펀칭기 천공	상하부 동시 노출	대비 확장, 깊이	관계 비교

<표 1>은 문자도 조형활동에 사용된 손의 행위 및 도구 사용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경계 표현 유형과 그 조형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비정형 경계, 반복 경계, 노출 기반 경계의 구분은 Arnheim(2015)의 시지각적 관계 인식, Itten(1975)의 조형 및 색채 대비 원리, Sennett(2008)의 손의 행위와 판단 형성에

관한 논의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조형활동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재구성한 분석 범주이다.

비정형 경계는 유연성과 변이의 유동성을 포함하며 조형활동에서 감각적 조정이 요구된다. 반면 반복 경계는 규칙성과 질서를 형성하여 구조 인식에 기반한 판단을 촉진한다. 노출 기반 경계는 상하부 색의 동시 노출을 통해 대비를 확장하고 색 관계를 비교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계 표현 유형의 구분은 이후 결과 분석에서 경계 표현 방식과 색 배치 구조의 상관관계를 해석하기 위한 1차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2. 감각적 색 선택과 배색 판단의 구조화 과정

색은 단독으로 존재할 때보다 다른 색과 함께 배치될 때 그 특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Albers(1963)는 색은 인접한 색에 따라 다르게 지각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색은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색과 색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색의 배치 방식은 단순한 색 선택이 아니라 색 간 관계를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배색 판단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시각적 지각을 사과의 한 형태로 규정한 Arnheim(2015)은 화면 구성에서 균형과 시각적 무게는 면적 비율과 색 분포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의 크기와 위치는 색의 중심성과 주변성을 규정하고 이는 색이 어떻게 배치되고 조정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배색은 개별 색의 선택이라기보다 면 구성과 비율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조정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자도 조형활동에서도 면 분할과 색 배치는 화면의 시각적 균형과 대비를 표현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문자의 획이 면으로 확장되고, 면이 색으로 채워지는 과정에서 색은 독립적 요소가 아닌 면 구조와 결합되어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자도는 문자 의미의 표현을 넘어서 면의 배치와 색의 관계를 다루는 조형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형활동 초기 단계에서 색 선택은 감각적 인상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각적 선택은 색의 개별적 속성에 대한 촉각적 반응으로 나타나며 초기에는 색 간 관계에 대한 고려보다 개별 색에 대한 직관적 반응이 우선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색이 인접 색과의 병치, 겹침, 노출 관계 속에서 제시될 경우, 색은 개별 요소로만 인식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재인식된다(Albers, 1963; Arnheim, 2015). 이러한 변화는 감각적 인상이 판단으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감각 경험이 의미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백운소, 2020). 이에 본 연구는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다음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2〉 배색 판단 형성 단계

단계	색 인식 방식	조형적 의미	특징
감각적 선택	개별 색 중심	직관적 반응	즉각적 색 선택
관계 인식	색 간 대비 인식	관계 중심 인식	인접 색 비교
구조적 조정	색 배치 조정	배색 판단 형성	면적/비율 조절

〈표 2〉는 문자도 조형활동 중 학습자의 색 선택이 감각적 반응에서 출발하여 관계 인식을 거쳐 구조적 판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배색 판단은 감각적 선택에서 시작하여 색 간 관계를 인식하고, 나아가 면적과 비율을 조정하는 구조적 단계로 확장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색 판단 형성 단계를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초기 단계인 감각적 선택 단계에서는 개별 색의 선호가 중심이 되며 판단은 의도된 의미에 따른 직관적 성격을 띤다. 관계 인식 단계에서는 색이 인접 색과의 대비 또는 조화 속에서 재평가되며 판단의 초점이 색 자체에서 색 관계로 이동한다. 구조적 조정 단계에서는 색의 면적 비율과 노출 범위, 중심-주변 관계를 조절하면서 화면 전체의 균형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배색 판단은 개별 색의 선호를 넘어 구조를 조직하는 인지적 행위로 확장된다.

본 연구의 문자도 조형활동 단계 흐름에서 이러한 세 단계는 시간적 순서라기보다 판단 방식의 변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색은 감각적 반응에서 관계 인식을 거쳐 구조적 조정으로 전환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계 구분을 바탕으로 조형 활동에서 나타나는 색 선택과 배색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양면 색종이의 구조와 겹배색의 대비 형성 조건

양면 색종이는 한 장의 종이에 서로 다른 두 색이 구조적으로 결합된 조형 매체이다. 단면 색종이가 하나의 색면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양면 색종이는 두 색이 하나의 물리적 구조 안에 내재되어 조형 행위를 통해 두 색이 동시에 드러나는 조건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색이 개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색 간 관계를 전제로 인식되도록 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반적인 양면 색종이는 한 장의 종이에 서로 다른 두 색을 전면과 후면에 배치하며, 대부분 동일 색상 계열 내 명도와 채도를 달리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조합은 미술 활동 중 색상은 유지하면서 명도와 채도의 차이를 통해 색 간 대비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하는 구조이다. 즉, 양면 색종이는 조형 활동 매체 관점에서 색 대비가 조형 행위 이전에 잠재적으로 내재된 상태로 제공되는 매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빨강-연한 핑크, 파랑-하늘색, 초록-연한 연두와 같은 조합은 색상은 유지하되 명도와 채도 차이를 형성하는 구조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검정과 고채도 색을 조합하여 강한 명도 대비를 포함하기도 한다.

양면 색종이의 배색 구조는 다음과 같은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 첫째, 명도 대비가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어 접기나 천공 과정에서 색 간 밝기 차이가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둘째, 채도 대비를 통해 주조색과 보조색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시각적 주목 영역과 배경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시각적 위계가 형성된다. 셋째, 두 색이 하나의 매체에 결합된 구조로 색 선택이 단일 색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적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양면 색종이 배색 구조의 예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Itten(1975)은 색 대비를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보색 대비 등으로 설명하였다. 양면 색종이는 이러한 색 대비 관계가 조형 행위 이전에 선행적으로 구조화된 매체로서 접기나 천공 과정에서 하부에 밝은색이 노출되면 형태 경계의 명도 대비가 강조된다. 또한 내재된 채도 대비는 고채도 면을 시각적 주목 영역으로 인식하게 하고 저채도 면은 보조적 배경으로 인식되게 한다. 이처럼 양면 색종이는 두 색이 한 장에 내재 되어 있어 색 선택이 단일 색의 선택이 아니라 관계 선택으로 색의 감각적 선택 과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양면 색종이로 접기, 겹치기, 말기, 천공과 같은 행위를 통해 두 색이 동시에 노출될 때, 색은 병치가 아니라 겹쳐진 상태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양면 색종이를 겹쳐 붙일 경우, 상부 색과 하부 색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접기를 통해 내부 색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색의 반전이 발생하고, 천공을 통해 하부 색이 노출되면 색 대비가 형성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접기, 겹치기, 말기, 천공과 같은 조형 행위 과정에서 색은 단순히 나란히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층위 구조 속에서 인식되며, 배색은 병치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양면 색종이는 색을 단순히 병치하는 재료가 아니라 색 간 관계가 선행적으로 구조화된 상태에서 조형 행위로 그 관계가 드러나는 구조적 매체로 재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조형활동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배색 판단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접기, 말기, 천공 과정에서 상하 색이 동시에 노출되면서 두 색의 관계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색을 단독으로 제시하는 재료가 아니라 색 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게 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양면 색종이는 색 대비를 실험하기에 적합한 조형 매체가 된다. 즉, 색 선택이 단일 색의 선호에서 출발하더라도 양면 색종이는 물리적 구조를 통해 학습자를 관계 인식과 구조적 조정 단계로 유도하는 매개 조건을 형성한다. 이는

2절에서 제시한 배색 판단 구조화 과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표 3>은 양면 색종이의 구조적 특성이 조형 행위와 결합될 때 어떠한 대비 인식과 판단 변화를 유도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양면 색종이 구조적 특성과 배색 판단 구조화 조건

재료구조 특성	조형 행위	대비 인식	인식 변화	배색 형성 판단
동일 계열 내 명도, 채도 차이	접기, 말기, 천공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색을 관계 속에서 인식	색 조화 중심 판단
고채도-저채도 조합	노출 조절	채도 대비	중심-배경 구분	강조 색 결정 판단
명도 차 큰 조합	천공	강한 명도 대비	경계 강조 인식	형태 강조 판단
노출 면적 조절 가능	찢기, 겹치기	면적 대비	비율 인식	균형 조절 판단
일부 확장 대비 조합 포함	병치	색상 대비	긴장감 인식	대비 완화 전략 판단
두 색이 한 장에 내재	모든 행위	복합 대비	즉각 비교 가능	전략적 배색 구성 판단

위 <표 3>과 같이 양면 색종이는 명도와 채도 차이를 기반으로 색채대비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며, 조형 행위를 통해 색의 노출과 면적 비율이 조절되면서 배색 판단이 형성되는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감각적 색 선택을 관계 인식 단계로 전환하고 나아가 구조적 조정 단계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매체적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양면 색종이 사용이 색 배치 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겹침과 노출이 배색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학습자의 조형 과정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교육적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계 표현 방식, 색채 대비 구조,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상호 연계된 분석 틀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 행위와 매체 구조가 배색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문자도 조형활동을 중심으로 조형 행위와 매체 사용에 따라 색채대비와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참여자인 예비교사에게는 미술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단순히 재현하는 수준 이상으로 수업에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과 조형 행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적 조형성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활동 구성은 결과물 중심의 표현 수업 설계가 아니라 예비교사의 재료 탐구의 방법과

관점을 확장하고, 양면 색종이, 가위, 핑킹가위, 천공 도구와 같은 다양한 매체와 조형 행위가 색의 배치 방식과 색 간 관계 형성에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과정이 배색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초등미술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수업을 수강한 2학년 예비교사 2개 반 약 60명을 연구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문자도 조형활동은 매주 2시간씩 5주 활동으로 운영되었으며 연구 시작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자료 활용 방식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동의서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수집된 자료에서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코드화하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현상을 해석하는 방법이다(손행미, 2017).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연구 자료는 문자도 조형활동 결과물, 활동 과정 사진, 학습자의 성찰 기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적 자료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조형 행위에 따른 경계 표현 방식과 색 배치 변화,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먼저 조형 활동 결과물과 과정 기록을 검토하여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요소를 중심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를 바탕으로 조형 행위와 색 배치 방식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2. 활동 구성 단계

본 연구에서 문자도 조형활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단순히 장식적으로 배열함에 그치지 않고 선택한 각 문자가 지닌 의미와 개인적 서사를 고려하여 화면을 구성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표현 주제는 좋아하는 문장, 사물의 명칭, 또는 자신을 상징하는 추상적 개념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고,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핵심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선별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글자는 의미 전달을 위한 기호가 아니라 주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 요소로 기능하였다(문찬 외, 2022).

조형활동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자 형태의 배치, 반복, 변형, 이미지와의 결합 방식을 문자의 의미와 함께 스스로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선택 과정은 정체성 인식과 시각적 구조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제작 과정에서의 판단과 수정 과정은 활동 기록지와 작품 설명 자료를 통해 수집되었다. 이는 조형 판단이 언어화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문자도 조형활동은 단일 기법에 국한되지 않고 색과 재료를 탐색하도록 단계적 활동 구성으로 구체화 되었으며 활동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손 그리기를 통한 색 감각 탐색

초기 단계에서는 손으로 문자를 그리며 자연스러운 색 조합을 감각적으로 탐색하도록 하였다. 연필, 펜, 색연필 등을 활용하여 의미와 의도에 따라 색 사용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하였다. 의도된 표현과

의미에 중점을 두고 단일 색 사용, 혹은 색이 무의미하다고 여길 경우는 사용하지 않도록 색 사용 여부 또한 표현 의도에 따라 결정하게 하며 의미와 형태의 조화를 색과 함께 고려하게 하였다. 색 선택은 직관적 선호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색은 주로 개별 요소로 인식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색이 관계 이전의 감각적 반응 수준에서 선택되는 초기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2) 스크래치 페이퍼 실험

스크래치 페이퍼를 활용하여 색의 층을 긁어내는 실험을 병행하였다. 이 과정은 이미 매체에 내재된 색의 하부 구조를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의도치 않게 형성되는 형태와 색의 우연적 표현과정에서 명도 대비와 채도 대비를 관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긁기 강도와 방향에 따라 나타나는 색의 양과 면적이 달라지며, 이는 색의 명도와 채도 대비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 단계는 색을 단일 면이 아닌 색을 관계 속에서 인식하게 하는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3) 양면 색종이를 활용한 찢어 붙이기

양면 색종이를 활용하여 찢기와 붙이기를 적용하였다. 언급하였듯이 양면 색종이는 두 가지 색이 하나의 매체에 내재된 구조적 매체로 색 선택과 동시에 색 간 관계 선택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찢기 과정에서 형성되는 비정형 경계를 통해 색면 간의 연결 방식의 유동적 변화, 겹침과 노출을 통해 명도 및 채도 대비가 즉각적으로 형성됨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 단계는 색의 대비가 재료 자체의 구조와 조형 행위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 단계이다.

4) 핑킹가위 및 천공을 통한 겹배색 구조 형성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위 및 핑킹가위를 사용하여 반복적 경계 패턴을 형성하고, 펀칭기와 같은 천공 도구를 활용하여 하부 색을 노출시켰다. 핑킹가위는 반복적인 패턴으로 리듬과 규칙성을 형성하였으며, 펀칭기를 사용한 천공은 상부와 하부 색이 동시에 인식되는 관통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색은 병치가 아니라 겹침구조에서 인식되었고, 노출 면적 조절을 통해 배색 판단이 구조적으로 조정되도록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활동 구성은 ① 감각적 색 탐색 단계, ② 색의 층위 실험 단계, ③ 겹배색 형성 단계, ④ 경계 표현과 관통 구조를 통한 대비 확장 단계로 구성되었다. 각 단계는 색 선택이 감각적 수준에서 시작하여 색 간 관계를 인식하고, 나아가 배색 판단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각 단계는 본 연구의 분석 기준과 직접적으로 대응된다. 즉, 경계 표현 방식(비정형, 반복, 관통), 색채대비 구조(명도, 채도, 면적 대비, 복합 대비), 배색 판단 형성 단계(감각적 선택, 관계 인식, 구조적 조정)는 활동 전 과정에서 관찰되도록 설계되었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

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3.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나타나는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본 분석 기준의 틀은 활동 결과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조형 요소의 특성들을 경계 표현 조형 행위, 색채대비 형성, 배색 판단 형성 단계를 상호 연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조형 행위와 재료 구조에 따라 나타나는 시각적 변화와 인식 변화를 해석하기 위한 틀로 구성되었고 활동 단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다음 <표 4>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문자도 조형활동 결과물에 적용한 통합 분석 기준틀을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기준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표 4> 문자도 조형활동 분석 틀

분석 기준	세부 범주	조형 행위 유형	관찰 요소	판단 구조 변화
경계 표현 방식	비정형 경계	찢기	불규칙 경계, 섬유 노출	우연성 인식, 감각적 조정
	반복 경계	가위 /핑킹가위	일정한 선형·반복 패턴	규칙성 인식, 구조 인식
	관통 경계	천공	상하부 동시 노출	경계 강조, 대비 확대 인식
색채대비 형성	명도 대비	겹침 /노출	밝기 차이	선명도 인식, 강조 판단
	채도 대비	병치 /찢기	선명도 차이	중심/ 배경 구분 판단
	면적 대비	노출 면적 조절	비율 변화	균형 판단
	복합 대비	천공 /겹배색	다중 대비	관계적 비교 판단
배색 판단 형성 과정	감각적 선택	초기 색 선택	직관적 반응	개별 색 선호
	관계 인식	병치 /겹침	대비 확인	색 관계 재평가
	구조적 조정	노출 비율 조정	면적 재구성	계획적 배색 판단

첫째, 경계 표현은 면과 면을 구분하는 시각적 요소로 조형 행위에 따라 형태와 구조가 달라진다. 손으로 찢은 경우는 불규칙하고 비정형적인 경계 표현이 나타나 색면 간의 연결이 유동적으로 형성된다. 반면 가위와 핑킹가위를 사용할 경우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경계 표현과 함께 패턴과 리듬이 형성된다. 또한 천공 도구를 사용할 경우는 경계는 선이 아닌 노출 영역의 형태로 나타나 상부와 하부 색이 동시에 인식되는 관통 구조가 형성된다. 이와 같은 경계 표현 방식의 차이는 색의 배치 방식과 색채대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색채대비는 명도 대비, 채도 대비, 면적 대비, 겹침 및 노출에 의한 복합 대비로 구분하였다. 색채대비는 색과 색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며, 색의 병치, 겹침, 노출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병치된 색은 주로 채도 대비를 중심으로 인식되며, 색의 겹침이나 노출이 이루어지면 명도 대비와 복합적 대비 구조가 형성된다. 특히 양면 색종이의 두 색이 하나의 매체에 내재된 구조적 특징은

조형 행위에 따라 색의 반전, 겹침, 노출이 동시에 발생하며 색 간 관계가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특성은 색채대비 인식을 강화하고 색을 관계 속에서 인식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셋째,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은 감각적 선택 단계, 관계 인식 단계, 구조적 조정 단계로 구분하였다. 배색 판단은 감각적 색 선택에서 시작하여 색 간 관계를 인식하고, 나아가 면적과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구조화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색이 개별적으로 선택되는 경향을 보이나, 조형 행위가 진행됨에 따라 색은 인접 색과의 관계 속에서 재인식되며, 최종적으로는 색채대비와 면 구성의 균형을 고려하는 배색 판단으로 확장된다. 본 연구에서는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을 감각적 선택 단계, 관계 인식 단계, 구조적 조정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 기준으로 조형활동 단계별로 나타난 경계 표현과 색 배치 방식의 변화를 비교하고, 색채대비 인식이 배색 판단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해석하였다. 각 기준은 독립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상호 연관된 구조로 작용하며, 조형 행위와 매체 구조가 색의 관계 인식과 배색 판단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범주 간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기준은 IV장의 연구 결과 분석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조형 행위와 색채대비, 배색 판단 형성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나타나는 조형 변화를 분석 기준에 따라 경계 표현 방식, 색채대비 형성 방식, 배색 판단 형성 과정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 손의 행위와 도구 사용에 따른 경계 표현 방식의 차이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경계는 면과 면을 구획하는 물리적 요소를 넘어 색 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계 표현 방식은 드로잉 선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였으나 주로 손으로 찢기에 의한 비정형 경계, 도구를 사용한 반복 경계(가위, 핑킹가위)와 관통 경계(천공)로 구분되었다.

1) 찢기에 의한 비정형 경계

양면 색종이를 손으로 찢어 붙인 단계에서는 경계가 불규칙하게 형성되었다. 찢는 방향과 힘의 차이에 따라 가장자리의 형태가 달라졌다. 일부는 종이 섬유에 의한 거친 결이 드러났으며, 일부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경계는 반복되지 않으며, 색면 사이의 연결은 유동적으로 형성되었다.



[그림 2] 찢기에 의한 비정형 경계 활동 결과 부분 예시

이 단계에서 색은 주로 병치 구조로 배치되었고 일부는 겹침의 형태로도 나타났다. 색 대비는 채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고, 명도 대비는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색 선택은 직관적 선호에 기반하여 경계 표현과 동시에 이루어진 경향을 보였고, 배색은 계획적 조정보다는 양면 색종이 매체 특성에 따른 즉각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찢을 때 색을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색이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찢으니 편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와서 최대한 다양한 모양으로 찢어 붙였다”, “손으로 찢다가 구겨서 두 가지 색이 함께 보이도록 뭉쳐서 표현했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특유의 빈티지함으로 색이 흐르듯이 연결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비정형 경계 표현이 감각적 조정 중심의 배색 판단과 자연스럽게 연결됨을 보여준다.

2) 가위 및 핑킹가위에 의한 반복 경계

가위를 사용한 경우의 경계는 비교적 일정한 곡선 또는 직선으로 매끈하게 형성되었고, 핑킹가위를 사용한 경우는 경계에 일정한 톱니 형태의 반복 경계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반복 경계는 화면에 리듬과 방향성을 형성하고 같은 색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는 패턴 구조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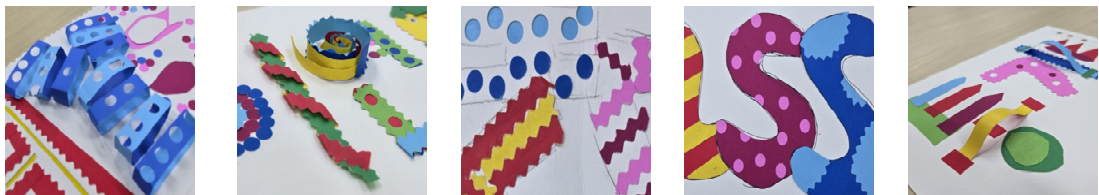
[그림 3] 가위 및 핑킹가위 반복 경계 활동 결과 부분 예시

이 단계에서는 색 배치가 경계 패턴에 맞추어 조정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채도와 명도 대비가 의도적으로 활용되었다. 특정 색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 경계를 활용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실제 활동지 기록에서는 “종이를 찢는 활동보다 도구를 활용하는 활동에 공을 더 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다”, “손으로 찢을 때보다 한가지 모양이나 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다”, “가위는 모양이 너무 일정해서 다양한 패턴을 만들기 어려워서 배색을

더 고민했다”는 표현들도 나타났다. 즉, 반복 경계 표현은 색의 개별적 선택 단계에서 벗어나 색 관계를 고려하는 배색 판단으로의 사고 전환을 촉진하였다.

3) 천공에 의한 관통 경계

천공 도구를 사용한 단계에서는 구멍을 통해 하부 색이 노출되면서 상부와 하부 색이 동시에 인식되는 관통 구조가 형성되었다. 구멍의 크기와 배열 방식에 따라 색의 노출 정도가 달라졌으며, 하부 색이 어두운 경우 명도 대비가, 선명한 경우 채도 대비가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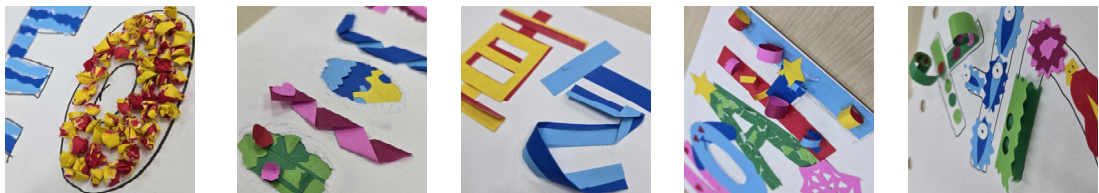


[그림 4] 천공에 의한 관통 경계 활동 결과 부분 예시

이 단계에서는 색이 병치 외에 겹침구조로도 인식되며 색 관계가 복합적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노출 면적과 위치를 조절하는 전략적 조정이 나타났으며, 이는 배색 판단이 구조적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참여자는 “나중에 학생들이 다양한 모양이나 배색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도구를 제공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계 표현 방식이 색의 배치 구조와 배색 판단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

2. 색채대비 형성 방식의 변화

양면 색종이를 활용한 조형활동에서는 색채대비가 병치 중심에서 겹침과 노출을 포함하는 구조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양면 색종이를 접거나 구기거나 말아서 겹칠 경우는 내부 색이 외부로 드러나며, 두 색이 상하 관계로 동시에 인식되는 겹배색 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림 5] 양면 색종이 겹배색 활동 결과 부분 예시

접기는 색의 반전을 유도하였고, 천공을 통해 하부 색이 노출되면서 명도 대비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노출 면적을 조절하여 대비 강도를 조정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일 계열 내 명도 차를 갖는 색 조합에서는 접힌 경계가 형태를 강조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색은 병치뿐 아니라 겹침과 부분 노출을 통해 복합적으로 인식되었다. 양면 색종이는 한 장의 종이로 단일 색 선택이 아닌 색 간 관계 선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즉 매체 특성상 색채를 시각적으로 비교하며 동시에 색 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게 하는 색채대비 조건을 제공한다. 실제 활동지 기록에서도 “색을 동시에 겹쳐 볼 수 있고 색이 따로 보이지 않고 같이 보여져 생각보다 대비가 강하게 느껴졌다”고 기술되었다. 따라서 양면 색종이는 색채대비를 단순히 실험하는 재료가 아니라 색 관계를 전제로 배색 판단을 요구하는 구조적 매체로 기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색채대비가 조형 행위와 매체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3. 감각적 색 선택에서 구조적 배색 판단으로의 전환 과정

활동 초기 단계에서 학습자는 손으로 색을 칠하거나 그리며 색 조합을 탐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색은 주변 색과의 관계보다는 개별 색의 선호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선택되어 배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스크래치 페이퍼를 활용하여 색층을 긁어내는 과정에서는 색의 하부 구조가 드러나면서 색 대비가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긁기 행위는 색의 층을 시각화하였고, 이는 색이 단일 표면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층위로 존재함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6] 배색 판단 전환 단계별 활동 결과 부분 예시

양면 색종이를 활용한 단계에서는 색이 인접 관계 속에서 재평가되었고, 천공 단계에서는 노출 면적을 조절하며 색 대비 강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중심 영역에 천공을 집중하여 강조 효과를 형성하거나 주변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균형을 조정하는 전략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배색 판단이 감각적 색 선택에서 시작하여 색 간 관계를 인식하고, 나아가 면적 비율과 노출 범위를 조정하는 구조적 판단으로 전환됨을 보여준다. 한 참여자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없이 맘에 드는 색을 골랐는데, 나중에는 전체 배색 효과를 생각하고 어느 부분을 더 뚫을지 고민하고 색을 선택했다”고 기술하였다. 즉, 감각적으로 선택된 색은 조형 행위와 매체 구조 속에서

관계적으로 배치되며, 배색 판단은 점차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조형 변화는 조형 행위와 매체 구조에 따라 색의 배치 구조와 배색 판단 방식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비정형 경계에서는 감각적 조정 중심의 배색이 나타났고, 반복 경계에서는 색 관계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관통 경계에서는 면적과 구조를 고려한 배색 판단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양면 색종이는 색 관계를 선행적으로 구조화하는 매체로 기능하며 배색 판단 형성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나타나는 색 배치 방식과 경계 형성 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촉각적 행위와 매체 구조가 배색 판단 형성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손의 행위와 도구 사용에 따른 경계 표현 방식, 양면 색종이의 구조적 특성, 감각적 색 선택에서 구조적 배색 판단으로의 전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손의 행위와 도구 사용 방식에 의한 경계 표현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손으로 찢는 행위는 비정형 경계를 형성하며 색면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과 병치 구조를 유도하였다. 이 단계에서 색 선택은 주로 직관적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색 대비는 채도 차이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가위와 핑킹가위를 사용한 경우는 반복 경계가 형성되며 화면에는 리듬과 규칙성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색은 더 계획적으로 배열되고 명도와 채도 대비가 의도적으로 활용되었다. 천공 단계에서는 상부 색 아래로 하부 색이 노출되면서 관통 구조가 형성되었고, 색 대비는 병치 구조에서 노출 구조로 확장되었다. 이는 경계 표현 방식이 색 관계 인식과 배색 판단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형적 조건임을 보여준다.

둘째, 양면 색종이는 매체 특성상 색 관계를 선행적으로 구조화하는 매체로 기능하였다. 단면 색종이가 병치 중심의 색 대비를 형성하는 것과는 다르게 양면 색종이는 접기와 겹침, 천공 과정에서 상하부 색이 동시에 드러나는 겹배색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동일 색상 계열 내 명도와 채도 차이를 지닌 양면 색종이 색 조합은 형태 경계를 강조하거나 중심과 배경을 구분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구조는 학습자가 색을 단일 요소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색 관계를 전제로 판단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양면 색종이는 색 대비를 실험하는 재료라기보다 배색 판단을 촉진하는 구조적 매체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배색 판단은 감각적 선택 단계에서 관계 인식 단계를 거쳐 구조적 조정 단계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였다. 활동 초기에는 개별 색의 선호에 기반한 선택이 중심이 되었으나, 인접 색과의 병치와 겹침, 노출이 발생하면서 색은 관계 속에서 재인식되었다. 특히 천공 단계에서는 노출 면적을 조절하며

대비 강도를 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나타났다. 이는 배색이 단순한 색 선택이 아니라 조형 행위와 매체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인지적 조정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날로그 조형 활동에서 손의 행위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를 재확인하게 한다. 손은 단순한 실행 기관이 아니라 재료의 저항과 질감, 접힘과 노출의 반응을 감지하며 판단을 수정하는 인지적 기관으로 작동한다(Sennett, 2008). 또한 반복적 행위는 미세한 차이를 생성하며 조형적 가능성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박정애, 2024).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경계 표현과 배색 변화 역시 이러한 감각적 조정 과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디자인 조형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색채 지도는 색 이론의 설명에 머무르기보다 행위 방식과 재료 구조를 포함하는 조형 조건 속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손을 사용한 찢기와 그리기 활동은 감각적 탐색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도구 사용은 색 배치를 구조적으로 조직하는 단계로 확장된다. 셋째, 양면 색종이와 같은 구조적 매체는 겹배색 구조를 통해 색 관계 인식과 자연스럽게 배색 판단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교육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특정 수업 맥락에 기반한 질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매체를 대상으로 색 관계 인식과 배색 판단 구조의 변화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겹배색 구조가 입체 표현 확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도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문자도 조형활동에서 나타난 색 배치 변화는 단순한 표현 기술의 향상이 아니라 촉각적 행위와 매체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배색 판단의 구조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디자인 조형교육에서 손의 행위와 재료 조건이 색 인식과 판단 형성의 중요한 교육적 자원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초등 미술교육 현장에서 색채 지도와 조형 활동 설계에 적용이 가능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윤경 (2023). ‘효’ 인성 교육 방안: ‘효 문자도 만들기’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과학연구**, 31(4), 30-50.
- 김영인·문영애·강죽형·조주연 (1999). COLOR SYSTEM을 이용한 색채 교육 자료의 개발. **한국 색채학회 학술대회**, 51-54.
- 문찬·김미자·신희경·임남숙·이상훈 (2022). 『기초조형 Thinking』. 파주: 안그라픽스.
- 박정애 (2024). 미술, 손의 작업인가? 두뇌의 작업인가?: 아날로그 미술의 교육적 의의와 중요성. **미술과 교육**, 25(3), 27-42.
- 백운소 (2020). 미술교육에서의 의미 만들기 과정에 대한 고찰: 로크와 흙의 감각 경험을 중심으로.

- 미술과 교육**, 21(3), 47-65.
- 손행미 (2017). 질적내용분석의 이해와 적용. **대한질적연구학회지**, 2, 56-63.
- 양순영 (2018). 강원지역의 효제문자도를 활용한 패턴디자인 개발. **한국디자인포럼**, 23(4), 183-196.
- 유장웅 · 신승택 (2007). 민화문자도의 표현내용과 표현양식에 대한 고찰.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8(14), 215-226.
- 장현주 · 고순희 (2013). 효제문자도의 孝字圖를 응용한 텍스타일 및 어린이 원복 디자인 개발. **한국 디자인포럼**, 41, 311-320.
- 전은자 (2010).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탐라문화**, 36, 221-260.
- 최호섭 (2026). 『딸깍거림의 귀환, 기술은 왜 다시 물성을 택했을까?』. 제일 매거진. <https://magazine.heil.com/57715> (검색일: 2026. 2. 27)
- Albers, J. (1963). *Interaction of color*.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Arnheim, R. (2015). *Visual Thinking*.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Itten, J. (1975). *Design and form: The basic course at the Bauhaus*. London, England: Thames & Hudson.
- Sennett, R. (2008). *The craftsm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right, S. (2017). Embodied learning through the arts: Insights into ontology.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8(3), 91-115.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Color Arrangement Judgment in Munjado-Based Art Activities: Focusing on Tactile Actions and Material Structure of Double-Sided Colored Paper

Kim, Ji-Eun¹

¹Lecture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rmation process of color arrangement judgment in Munjado-based art activities, focusing on the role of tactile actions and material structures. The study analyzed art activities conducted with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cluding hand-tearing, tool use, punching, and double-sided colored paper. The results show that boundary expression methods influenced color arrangement structures, and double-sided colored paper functioned as a structural medium that facilitated relational color perception. In addition, color arrangement judgment developed from intuitive selection to relational recognition and structural adjus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actile engagement and material conditions are essential factors in developing structured color judgment in art education.

Key Words: Munjado, Color Contrast, Color Arrangement, Color Arrangement Judgment, Formative Activity, Art Education